

구례단내투어단 역량 교육 실시

‘B-boy·여행유튜버’ 브루스리-젊은 공직자들과의 만남 ‘크리에이터의 시선과 삶의 가치’ 주제 다양한 노하우 전달



구례군은 지난 5월 1일 여행유튜버이자 비 보이로 활동하는 브루스리(본명 신규상)를 초

청하여 구례단내투어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날 교육은 ‘크리에이터의 시선과 삶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브루스리는 비 보이로 전성기를 누리면서도 영상 크리에이터 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게 된 계기, 여행을 하며 겪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 누리꾼 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 제작 노하우 등을 열정적으로 전달하였다.

구례단내투어단은 매년 SNS 활용에 익숙한 젊은 공직자들 100여 명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각종 매체에서 구례의 관광명소, 맛집 등을 알리고 있으며, 이날 교육을 통해 구 례 홍보에 대한 각오와 다짐을 더욱 갖게 되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유익하고 즐거운 강연을 진행해주신 브루스리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구례가 더욱 알려 지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추월산 용마루길 보수공사 완료...재개통 노후된 구간 전면 교체와 시설물 보수공사 거쳐 다시 관광객 맞이

담양군의 대표 관광명소로 꼽히는 추월산 용마루길이 시설물 보수공사를 거쳐 1일 다시 개통했다.

지난해 군은 용마루길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약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월산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비 내산 방향으로 조성된 탐방로 3.9km 중 노후된 0.8km의 구간을 전면 교체하고, 목교 기동 재도색 등 시설물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군은 앞으로 담양호 수변길을 담양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용마루길을 잇는 출렁다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담양호 수변길 조성사업’을 통해 담

양호 전체를 수변길로 연결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이병노 담양군수는 용마루길을 직접 걸으며 보수공사가 완료된 구간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이병노 군수는 “개설된 이후 10년간 군민과 관광객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던 용마루길이 노후로 인해 탐방로 곳곳에 파손된 구간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돼 이번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지난해 12월부터 통제됐던 용마루길이 다시 개통됨에 따라 봄철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에 농산물 수출플랫폼이 구축된다

‘2023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선정

화순군은 지난 27일 2023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화순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차체적으로 대규모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공모에 응모해, 1차 서면심사 및 2차 발

표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지속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사업은 토마토, 사인머스켓 등 화순 농산물 뿐만 아니라, 전남의 농산물까지 확장하여 수출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능주면 남정리 120-1번지 일원에 ▲수출선별시설 등 수출단지 조성 ▲수출비어 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수출 온·오프라인 홍보, ▲브랜드 이미지 개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상품의 다양성 개발 ▲수출조직체 구성·운영 ▲전문인력양성 ▲품질고급화 및 안정성 확보 ▲영세농가지원 등으로, 2024년까지 수출 인프라 구축에서 운영까지 확장하여 10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이번 선정된 ‘화순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수산식품클러스터와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수출 확대를 통한 농산물 내수시장 안정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섬진강 동화정원은 지금 ‘초록빛 물결’

동화정원 예정 부지 10만㎡ 규모 호밀밭 조성돼 장관



곡성군 섬진강 동화정원 예정 부지에 10만㎡ 규모로 호밀밭이 조성돼 초록빛 물결을 이

루고 있다.

곡성군은 섬진강 동화정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전, 총의공원 일원에 다양한 색채와 향기로 가득 찬 꽃단지를 조성해 지역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동화정원 내 유희부지에는 매년 꽃단지가 조성돼 있어 주민들과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곡성은 지형이 높은 산이 많고 깊은 골이 많은 지형이나 동화정원은 보기 드문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산책로를 따라 동화정원에 오르면 지난 추

운 겨울을 이기고 자란 호밀이 잘 자라 짙푸른 초록빛 물결 가득한 호밀 단지과 곡성을 시가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또한 동화정원 순환로가 잘 조성되어 길 따라 걷다 보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동화정원만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동화정원에서 내려다보면 깔끔하게 잘 정비된 곡성전 제방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푹망마켓이 열린다. 푹망마켓이 열리는 곡성전 양안에는 흥메밀을 파종해 곡성세계장미축제 즈음에는 곡성전과 어우러진 붉은 꽃밭을 볼 수 있다.

곡성전에서는 현재 크라운해태와 함께하는 견생조각전이 6월 9일까지 열린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 유명 조각가들의 대형 조각품이 천변을 따라 전시돼 있어 또 하나의 볼거리다.

곡성=양혜영기자

나주시, 어린이날 축제 풍성

나주시와 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제101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미래 주역들을 위한 풍성한 잔치를 연다.

나주시는 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빛가람호수공원 야외 무대 일원에서 ‘2023년 나주 어린이 큰잔치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리는 어린이날 큰 잔치는 ‘미래 주역은 어린이이다’라는 주제로 총 2부에 걸쳐 관내 어린이집 재롱잔치, 기념식, 각종 공연과 체험·이벤트, 놀거리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1부 기념식은 어린이헌장 낭독, 모범어린이(25명), 문화예술·아동복지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2부는 공연, 놀이, 체험 마당으로 꾸며진다. 어린이 판소리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태권도

시범단, 레크리에이션, 가면마술·풍선·버블쇼 등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양한 공연 무대가 예정되었다.

물면서 배우는 체험 부스도 다채롭다. VR기기로 가상 세계를 들여다보는 AR·VR, 전남 관광 메타버스 체험 부스를 운영해 미래 인재들에게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운영태 나주시장은 “다채로운 공연 볼거리, 놀면서 배우는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행복한 어린이날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어린이들의 권리 증진과 진로·체험기회를 폭넓게 확대해 나주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동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 이후 오후 6시 30분부터 영산포 흥어의 거리에서는 나주시 최장수 음식문화축제인 ‘제19회 영산포 흥어축제’개막식이 열린다.

나주=송준표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